

'위장전입' 강진 초등교육 위기

특정학교 선호...통학 구역 위반 268명

읍지역 시설 부족·면지역은 교실 '텅텅'

강진지역 일부 학부모들의 특정 초등학교 선호로 통학구역을 위반한 위장전입 학생이 급증하면서 각종 학교 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강진교육청은 강진읍내 4개 초등학교에서 통학구역을 위반한 학생수가 268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학구역 위반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중앙초교로, 전교생 1천 78명 중 20%에 이르는 201명이 통학구역을 위반하고 있으며 위장 전입 학생도 91명이 나왔다.

중앙초교는 통학구역 위반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도서실 등 특별실들

일반학급 교실로 전환하는 한편 각종 교재교구의 부족현상마저 겪고 있다. 강진읍내 4개 초등학교에서 통학구역을 위반한 학생수가 268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학구역 위반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중앙초교로, 전교생 1천 78명 중 20%에 이르는 201명이 통학구역을 위반하고 있으며 위장 전입 학생도 91명이 나왔다.

또 학생수 증가로 급식시설이 3교대로 운영돼 5, 6학년의 경우 오후 1시 10분부터 점심식사를 한 뒤 쉬는 시간이 없이 5교시 수업에 들어가는 등 열악한 교육여건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앙초교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명문 초등학교로 학부모들이 선호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근 동초등학교는 매년 10여명씩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2000년 515명에 이르던 학생수가 361명으로 줄었고, 학급수도 19학급에서 14학급으로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로 교실 5곳이 쓸모없이 방치돼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통학구역 위반학생을 파악하는 한편 읍 사무소 등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관계 기관이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통학구역 위반사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위장전입의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강진읍에서 현재까지 통학구역 위반과 관련,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결국 강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지

난해 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2008년도 중앙초등학교 취학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이장의 확인 도장을 받아 학교에 제출토록 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현재 재학중인 통학구역 위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거주구역 학교로 전학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해당 학부모들의 반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곽영체 강진교육청 교육장은 "위장전입으로 통학구역을 위반한 학생들의 부모 중 공직자와 종교인 등 지역내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그릇된 자녀사랑으로 어린 학생들이 교육적 불이익을 겪고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로 위장전입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11년째 졸업생 전원 4년대 진학 '명문 사립' 위상 굳힌 장성고

장성고가 11년째 졸업생 전원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화제다.

14일 장성고에 따르면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졸업생 264명

학생 70% 기숙사 생활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해 '졸업생 전원 4년제 합격'의 전통을 11년째 이어갔다. 특히 서울대 2명, 경북대 1명, 연·고대 22명, 사관학교 13명, 교육대 17명을 비롯해 의·치·한대의 8명 등 졸업생의 53.7%인 142명이 수도권 대학에 합격했다.

이처럼 장성고가 명문 사립고로 자리매김한데는 재학생의 70%가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를 바탕으로 자율선택형 맞춤형 학습과 인성인성, 특기·적성교육 등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장성고는 활용가능한 모든 형태의 수업 및 시설을 완전 개방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

자율선택형 맞춤 학습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자율선택형 맞춤식 학습'을 도입, 부족한 과목에 대한 집중이수를 통해 실력향



장성고가 졸업생 전원 4년제 대학 합격 전통을 11년째 이어가려는 등 명문 사립고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14일 열린 올해 졸업식 장면.

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대입제도 변화와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성인성교육과 논술 시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입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입정보실의 경우 사설학원의 입시분석 자료는 물론 장성고가 실제 진학지도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통합논술교육에 대비해 교사 논술 동아리를 만들어 논술자료 개발과 함께 이들 교사들로 하여금 실제 수업을 전담케함으로써 올해 수시전형에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골프반과 포켓볼반·시사이슈반·토익토플반 등 26개

특기적성교육 26개

부서의 특기적성교육도 병행, 학업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고 있다. 반옥진 교장은 "논어촌 학교도 학생의 다양성을 신장시키고 실력향상 프로그램만 갖춘다면 도시 학교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사교육의 장점까지도 학교 현장에 적용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성=정필수기자 bungy@



'졸업 시즌' 장미 수확 한창

발렌타인데이와 졸업, 입학 등 본격적인 장미 수요철을 맞아 강진군 칠랑면에서 장미 수확이 한창이다. 칠랑면 일대에는 40여 농가가 '명심화훼영농법인'을 구성, 전남도내 최대 면적인 19만여㎡에서 연간 1천200만송이의 장미를 재배, 25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발렌타인데이와 졸업, 입학 등 본격적인 장미 수요철을 맞아 강진군 칠랑면에서 장미 수확이 한창이다. 칠랑면 일대에는 40여 농가가 '명심화훼영농법인'을 구성, 전남도내 최대 면적인 19만여㎡에서 연간 1천200만송이의 장미를 재배, 25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공직자 청렴도 높이기

화순군, 실천방안 마련

화순군이 공직자 청렴도 높이기에 나섰다.

화순군은 대민 행정업무에 대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3개 항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실천방안의 첫째 항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해당 민간인에게 반드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업무를 공정히 처리하며 어떤 경우에도 금품·함몰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둘째 항은 주택과 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및 식품·환경 등의 지도·단속시 해당 민원인에게 청렴 계약·공무원 비리 종합신고센터, 기획감사실 부조리 신고센터 등 다양한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한 운영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곡성 옥과농협 '친환경 영농교육'



곡성 옥과농협은 지난 13일 농협 2층 회의실에서 '2008 친환경농업 영농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에는 옥과와 오산·겸면 등 3개 지역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철 조합장은 "친환경 영농교육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정필수기자 bungy@

"광산구 역사 자료 찾습니다"

區史 편찬 위한 다양한 자료 수집

광산구가 구사(區史) 편찬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광산구는 택지개발 등으로 급변하는 지역 역사를 조망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구사 편찬위원회를 구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했다.

구는 유·무형의 문화예술 자원을 모두 발굴해 상세히 기록하는 한편 각 시대의 생활상 및 사회체계, 풍속, 경제상황, 주요 사건, 인물 등도 빠짐없이 수록할 계획이다.

또 주민과 출장인사, 자료수집가 등을 대상으로 각종 고문서나 사진, 관찬사료, 옛 신문기사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구전(口傳)되는 이야기도 녹취해 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출된 자료는 디지털 방식으로 영구 보존되며, 원본은 소장자에게 되돌려 준다.

광산구는 과거 동일 행정구역이었던 나주목(羅州牧)과 장성현(長城縣), 광산현(光山縣) 자료도 찾고 있다. 문의(062-940-9738) /광산=기원태기자 wtke@

담양의국어체험센터 문 열었다

영어로 입국심사·매표소·쇼핑센터 등 체험

담양 지역민들의 생활영어 교육 요람이 될 '담양의국어체험센터'가 지난 13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과 이정섭 담양군수, 최화삼 담양군의회 의장, 문이중 담양교육장 등

각계 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담양동초등학교 별관에 들어선 담양의국어체험센터는 교실 4칸(360㎡) 크기로 3억8천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외국어체험센터에는 담양홍보관

등 10개의 체험학습 공간을 가변형으로 설치, 영어로 입국심사·매표소·쇼핑센터 등 16가지의 다양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기 중에는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1일 체험 형식으로 운영하며, 방학중에는 5~6학년과 중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루 6시간씩 5일간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일반인은 매주 금요일 오후 4~5시에 이용할 수 있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한방으로 치료

강원대학교, 최우 2년 간민복음으로 20년 임상경험 가진 최민복

최민복 원장은 20년 임상경험을 가진 한방 전문의로,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등 남성 질환에 대한 치료에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 그는 "한방은 인체의 균형을 맞추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최민복 원장
 강원대학교 한방병원 원장
 최우 2년 간민복음으로 20년 임상경험 가진 최민복

www.hanbang1111.com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 이 있습니다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곳입니다. 넓은 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 062-238-0008, 010-9103-4004